***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26일 화요일 |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 26호

김정일총비서 현지지도 대홍단감자가공공장

조선중앙통신 - 주체91(2002)년 2월 24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3일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기남비서와 리용철, 장성택제1부부장들, 조선인민군 현철해, 박재경대장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공장의 확장공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새로 건설한 분탕직장, 물엿직장, 술직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을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설치한 기계들의 가동상태와 제품의 질, 포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 보시고 건설자들이 현대적인 공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의 몸으로 로동자들을 성심성의로 도와 주고 있는 경공업과학분원 발효연구소 연구사 김명희를 만나시여 그의 숨은 노력을 치하해 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감자가공공장은 군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만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감자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들에 현대적인 감자가공공장을 더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현지에서 올해 대홍단군의 감자농사형편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감자농사에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인 과업들을 다시금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감자농사혁명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중대한 사업의 하나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고산지대의 다수확작물인 감자농사에 계속 력량을 집중하여 생산을 급격히 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농장에 진출한 제대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을 알아 보시고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농업생산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날 주둔부대 중대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향일회≫회원들 2.16태양맞이모임

지난 16일 새벽 정동진에 도착한 ≪향일회≫ 회원들은 장쾌하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 민족수호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만세의 환호성을 터쳤다.

모임에서 회장 이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우리 겨레가 **김일성**주석을 맞이하여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광복을 이룩했다면 오늘은 **김정일**장군을 모시어 민족의 운명이 수호되고 조국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다. 나는 오늘의 한반도정세를 관망하면서 이것을 더욱 절감하는 바이다. 뜻깊은 이 아침 민족수호의 영장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을 경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큰절을 드리자는 것을 제의한다.≫

제의에 따라 회원 모두는 **김정일**장군님의 안녕과 민족자주통일을 기원하면서 북녘하늘을 우러러 큰절을 올렸다.

동향
1 김정일장군님 현지지도, 대홍단감자가공공장
1 단신 – ≪향일회≫회원들, 2.16태양맞이모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2)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세기와 더불어
4 3장 4절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2)

칭송
6 오각별 빛나는 조선지도
6 2월의 새풍경
6 김정일동지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기둥이시다

한국민족민주전선
7 민족의 자랑 시대의 영광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24일
8 통일의 태양 받들어 민족의 숙원 이룩하자
8 미국과의 대결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정일**장군
9 호전광 부시, 주한미군 계속 주둔 망발
9 현실이 요청하는 반전반미투쟁

광고
15 구국전선 제469호

조선중앙통신
10 주체 91, 2월 24일
11 우리 수령제일주의 – ≪로동신문≫ 공동사설 해설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2 어버이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

아리랑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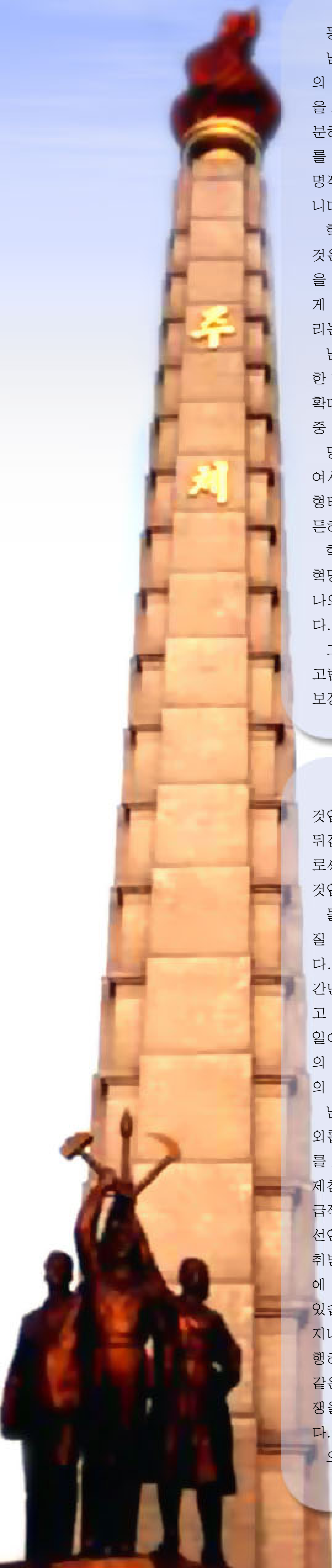
13 맥도널드 불매운동 ≪반미 행동전≫확산
13 동계올림픽 북미 편향, 반미열기 고조
13 부시반대집회 과잉진압, 각계 항의
14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정부 방북불허로 무산
14 공공부문 총파업, 25일 새벽부터 시작
14 국가보안법폐지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하라
14 대테러 북미사령부체제, 캐나다 반대의사 표명

운동강좌
15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1)

조국통일3대헌장
16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 방식에 관한 논의 (4)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2)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발췌 / 1970년 11월



동지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쑤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제때에 물리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 할 수 있습니다.

혁명력량을 마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하며 그 두리에 로동자, 농민을 굳게 묶어 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것입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혁명군중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당력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당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며 그것을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기본부대를 잘 꾸리는 것과 함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묶어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절대적인 우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은 반제반파쑈민주화의 기치 밑에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군중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학생들을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 세우며 이들과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과의 조직적 뉴대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은 광범한 대중적 투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만 끊임없이 장성강화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만 인민대중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 결속이 촉진되어 혁명의 핵심 대렬이 늘어나고 혁명조직의 전투력이 강해집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 발전시키는 과업이 긴급하면 할수록 미제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옳은 전략전술적 지도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 수준을 잘 참작하며 그에 알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선택하며 원쑤들의 내부모순과 약점들을 비롯한 온갖 가능성들을 능숙히 리용하는 것입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 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 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쇼독재를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정치적 자유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더욱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련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혁명적 폭력은 혁명적 폭력으로 짓부시며 폭력에는 언제나 폭력으로 맞설 수 있도록 혁명력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 군대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축적하여 나간다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경은 현 반동정권을 뒤집어 엎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움으로써 남조선혁명의 목적을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앞길은 의연히 험난합니다. 그러나 원쑤들의 어떤 발악도 어떠한 간난신고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어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멈춰세울 수 없습니다.

남반부 인민들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 자신의 투쟁입니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하여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 자체가 주동이 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북반부 인민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정세는 반혁명에는 불리하고 혁명에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으며 모든 대륙의 진보적 인민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해방 투쟁을 견결히 지지 성원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의 붕괴와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동지들!

미제국주의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민족적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전 조선 사회의 통일적 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임무이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아 미군 철거를 주장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 조국통일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루차 표명하였습니다.

남조선의 현 위정자들이 파쑈적인 군사정변을 꾸며내고 정권을 가로챈 다음에도 우리는 그들이 매국매족행위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민족적 립장으로 돌아설 것을 바라면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을성있는 로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낸 다음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협정을 맺으며 남북 사이에 경제문화교류와 인사왕래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조선인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될 때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세울 것을 남조선 당국에 여러번 제의하였습니다. 만약 이러저러한 리유로 남북조선총선거를 당장 실시할 수 없다면 먼저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나서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 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련방제라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쑤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제때에 물리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는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매번 묵살해 버렸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 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비호 밑에 남조선괴뢰들은 조선의 통일은 오직 ≪승공통일≫이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떠벌리면서 있지도 않는 이른바 ≪남침의 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혁명을 말살하고 나아가서는 공화국북반부를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침략적 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쑤들은 이런 황당한 구실을 내걸고 미제침략군대의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려고 꾀하는 한편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군사 시설들을 확장하며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승공통일≫이란 공산주의를 없애고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황한 망상이며 얼빠진 자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벌써 25년 동안이나 공산주의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자기들의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여 왔습니다. 공산주의사상은 이미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 잡았으며 허물수 없는 위대한 물질적 힘으로 전변되였습니다.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내맡기자는 것입니다.

요즘 남조선 괴뢰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에 대하여 말, 한다면 그것은 조국통일 문제를 실현할 아무런 방도도 없는 철두철미 허위와 기만에 찬 정치적 모략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화통일구상≫이요, 뭐요 하고 떠벌리는 목적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고 있는 자주적 평화통일기운을 무마하고 저들의 매국매족행위를 가리우며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계의 이목을 딴데 돌리려는 데 있습니다.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탄압하며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계속 애걸복걸하며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자기 민족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넘기며 월남침략전쟁에 남조선 청년들을 미제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는 매국역적들과 어떻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조선에 미제침략군대와 현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와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 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서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 것입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으로서도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억센 투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원쑤들의 음흉한 책동을 반드시 짓부시고야 말 것이며 조국을 기어코 통일하고야 말 것입니다.

(끝)

정치사전

혁명의 주력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주력군이란 혁명에 동원될 수 있는 기본계급과 그속에 깊이 뿌리 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집》 18권, 259페지)

혁명의 주력군은 매개 나라 혁명에서 주체적력량을 이루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전략적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린다는것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운동을 옳게 이끌어 나갈수 있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잘 꾸리고 그 전투력을 높이며 당의 두리에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을 묶어 세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려야 혁명의 결정적력량을 마련하고 중간층의 동요를 극복할수 있으며 혁명의 편에 끌수 있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전취할수 있다. 또한 반혁명세력의 공세를 철저히 분쇄하고 혁명운동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혁명정세가 성숙되면 결정적인 투쟁을 벌려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다.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당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지도력량을 마련하는것이다. 당의 지도력량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를 정확히 분석판단하며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옳게 세워 혁명운동을 힘 있게 밀고 나갈수 있는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꾸려야 한다.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이 기본계급인 로동자, 농민들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는것이다. 당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농민을 예비군으로서가 아니라 혁명의 기본력량으로 인입하여 로동자,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킨 기초우에서 당력량을 확대하며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혁명의 주력군을 키우고 보존하며 강력한 부대로 만드는데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 세워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계각층의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 세워야 반혁명세력을 더욱 고립시키고 혁명의 주력군에 대한 적의 공격을 약화시킬수 있으며 혁명력량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확대강화할수 있다.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2)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우리는 두지동에서 그해 음력설을 쇠였다.

설명절이 지난후 나는 연예대원들을 무송으로 돌려보내고 계영춘, 박차석과 함께 안도땅으로 향하였다. 안도현에는 조선사람들만 사는 내도산마을이 있었다.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우는 백두산기슭의 이 마을은 울창한 밀림속에 산간벽촌이였다. 내도산이란 수림속의 섬같은 산이란 뜻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중국사람들은 산모양이 젖꼭지 같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내두산이라고도 한다.

이 산간마을에 오래전부터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이 드나들었다. 독립군의 백전로장인 홍범도와 최명록도 한때 이 부락에 와있었다.

우리가 이미 ≪ㅌ,ㄷ≫성원인 리제우를 내도산에 파견하여 그 일대의 청년들을 조직에 묶어세우도록 한 것은 장차 백두산 주변을 큰 혁명기지로 만들자는 타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제우(리우)는 황해도태생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장백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의 련계밑에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런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리제우도 자연히 나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화전에서 헤어진후 내가 리제우를 다시 만난 것은 무송에서 백산청년동맹을 결성할 때였다. 나는 그때 그와 내도산부락에 백산청년동맹지부를 내올데 대한 문제를 의논하였다. 리제우는 롱절반 진담절반으로 자꾸 과업만 주려 하지 말고 한번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무송에서 내도산까지는 300리가 넘었다. 중국쪽에서 보면 만주땅의 마지막부락이지만 조선땅에서 보면 백두산너머 첫 마을이다. 이 내도산주변 100리안팎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

우리는 저녁녘에 마을에 도착하여 리제우의 안내로 한 의노릇을 하는 최씨의 집에 들었다.

최씨의 말이 우리가 들어있는 방에 장철호가 두번 와있었고 리관린이도 있었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다녀가고 아버지의 친구들이 개척하던 고장에 오늘은 우리가 와서 혁명의 보습을 대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숙연

지하투쟁을 앞두고

해지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내도산부락에 며칠 있어보니 리제우가 기어이 와달라고 하던 심정이 리해되었다. 내도산마을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발을 붙이기가 무척 어려운 고장이였다.

마을에는 주로 최가, 김가, 조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들은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서로 삼각혼사를 맺었다. 최씨네 딸은 김씨네 아들한테 시집을 가고 김씨네 딸은 조씨네 아들이 데려갔으며 조씨네 딸은 최씨네 며느리로 들어갔다. 좁은 골안에서 혼사가 이런 식으로 맺어지다나니 온 마을이 친척관계로 얽혀져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형님≫, ≪아재비≫, ≪사돈님≫하면서 돌아갔다.

이 마을 사람들은 거의다 천불교를 믿었다. 천불교신자들은 하늘에서 99명의 선녀가 백두산천지에서 미역을 감고 올라갔다는 전설에 기초하여 그곳에 ≪덩덕궁≫이라는 99칸자리 절간을 지어놓고 일년에 두번씩 찾아가 기도를 드리었다. 천불교신자들은 마을에도 ≪천불사≫라는 절간을 지어놓고 열흘이나 한주일에 한번 정도씩 가서 기도를 드리었다.

우리가 내도산에 도착한 다음날이 마침 천불교신자들이 절간에 가서 기도를 도리는 날이였다. 그날 우리 일행은 리제우의 안내를 받아 절간근처에까지 가보았는데 과연 장관이였다. 신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고구려 사람들처럼 머리를 우로 틀어올리고 울긋불긋한 옷차림으로 한데 모여들어 꽹과리와 제금을 치고 북과 목탁을 두드렸는데 덩덕궁덩덕궁하는 소리가 아주 장엄하였다. 그래서 절간이름마저 ≪덩덕궁≫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였다.

리제우가 하는 말이 내도산일대에서는 이 천불교가 골치거리라는 것이였다. 그는 종교가 아편이라는 단순한 관념을 가지고 천불교를 곱지 않게 보고 있었다. 무송에서 리제우의 말을 들었을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의식을 거행하는 천불교신자들의 진지한 모습과 웅장한 ≪덩덕궁≫을 보고나서는 생각을 한번 더 깊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최씨의 안내를 받으며 리제우와 함께 천불교 교주 장두범을 찾아갔다.

장두범은 한때 독립군에서 싸우던 사람이였는데 독립군이 맥을 못추게 되자 총을 내던지고 내도산에 들어와 왜놈들에게 천벌을 내리고 조선민족에게는 복을 내려달라고 백두산천기에 빌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하는 천불교를 만들었다는 것이였다.

나는 교주와 담화를 하면서도 천정밑에 매달려있는 기장이삭에서 시선을 뗄수 없었다. 최씨네 집에서 본 기장이삭이 교주의 집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매달려있었기 때문이였다. 종곡을 하려고 간수해두는가고 리제우에게 물었더니 그는 불공을 드릴때 쓰는 기장이라고 시답지 않게 대답하였다. 논농사를 하지 못하는 이고장 사람들은 제밥을 지을 때 흰쌀(입쌀)대신 기장쌀을 썼는데 어느 집에서나 기둥이나 천정 같은데 기장이삭을 매달아두고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번지를 때에도 그들은 이 기장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백두산절간에 불공을 드리러 갈 때에만 그것을 절구에 정성껏 찧어 키질을 하고 나무숟갈로 싸래기와 풀씨, 뉘, 티럼불을 고른 다음 똑같은 크기의 쌀알만 하나하나 모아 참지에 싸두었다가 깨끗한 샘물에 제밥을 짓군 하였다.

≪그 망할놈의 천불교때문에 내도산사람들이 그만 다 환장하였소.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맑스의 말은 정말 명언중의 명언인 것 같소. 이런 종교쟁이들을 새 사상으로 개조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며 가능하겠는가 하는거요.≫

리제우는 이렇게 푸념하면서 내도산사람들의 얼을 다 뽑아서는 ≪덩덕궁≫에 불을 지르고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치밀때도 있다고 고백하였다.

나는 리제우의 관점이 협애하다고 비판하였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맑스의 명제를 나는 물론 부정하지 않소. 그러나 이 명제를 어떤 경우에나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요. 일본에 천벌을 내리고 조선민족에 행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천불교에다 그래 아편이라는 감투를 함부로 씌울 수 있겠소? 나는 천불교를 애국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며 이 교의 신자들을 다 애국자라고 생각하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애국자들을 하나의 력량으로 묶어세우는 것뿐이요.≫

나는 리제우과 앉아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천불교를 타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일감정을 적극 지지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한 열흘가량 물러있으면서 마을사람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종교를 믿는 것으로는 조국을 광복하지 못한다는 나의 말을 천불교신자들은 쉽게 긍정하였다.

그해 겨울 내도산사람들이 우리를 참으로 성의있게 대해주었다. 내도산사람들의 주식은 감자였다. 땅콩을 넣은 감자밥이 제맛이였다. 계영춘은 방귀바람에 구들장이 꺼지겠다고 우스개 소리까지 하였다.

만일 그때 우리가 내도산에 가보지 않고 길림에 앉아서 리제우의 보고를 들었거나 지나가는 풍문이나 얻어듣고 사태를 판단하였더라면 천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도산에 가서 ≪덩덕궁≫도 보고 기도를 드리는 신자들의 진지한 표정도 보고 집집의 대들보밑에 달아맨 기장이삭들도 보았기 때문에 천불교와 그 신자들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릴수가 있었다.

인민적풍격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인민적인 사고방식을 지닌다는 것은 결코 탁상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욱이 말공부로써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육성은 물론, 숨결, 눈빛, 표정, 말투, 손세, 몸가짐까지도 자기의 눈과 귀로 직접 포착할 수 있는 인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이다. 우리는 마을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선행시킨 다음 이 부락에 백산청년동맹지부를 내오고 소년탐험대를 꾸려주었다.

내가 길림으로 돌아온후에는 우리 형권삼촌이 백산청년동맹사업을 책임지고 리제우와 함께 덕수, 독골, 절골, 약수등, 임수골, 지양개를 비롯한 장백일대와 신파, 보천, 혜산, 갑산, 삼수 등 국내 여러 지방들에 그 지부들을 조직하였다.

동맹은 리제우에게 백산청년동맹 장백지구 책임자의

두지동집

임무를 맡기였다. 리제우는 그 중임을 훌륭히 감당해냈다. 형권삼촌과 리제우는 백두산일대를 혁명화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덕으로 우리는 후날 이 일대에서 혁명투쟁을 할 때 군중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배움을 잠시 중단하고 쉬는 때가 방학이지만 나는 그해 겨울방학에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웠다.

겨울방학을 마치고 길림으로 돌아온후 우리는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반년간사업을 총화하고 각계각층의 청년들과 군중들을 망라하는 계층별 대중조직들을 더 많이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김혁, 차광수,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등 공청핵심들이 흥경현, 류하현, 장춘현, 이통현, 회덕현 일대와 국내로 떠나갔다. 그들은 거기에 가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각종 대중조직들을 빠른 속도로 늘여나갔다.

나는 길림에 남아서 신안툰에 농민동맹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하였다. 농민들을 조직에 결속하는 것은 그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준비시키기위한 사업이다. 특히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들을 전취하는 문제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였다.

교하거리

우리는 강동마을에 나가서 농민동맹도 조직하고 반제청년 동맹지부와 부녀회도 조직하였으며 련이어 카륜과 대황구에도 반제청년동맹지부를 무어주었다.

교하지방에도 반제청년동맹지부를 조직하였다. 내가 교하의 청년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려신청년회 조직부장 강명근을 만난 다음부터였다. 이 사람이 아마 장철호한테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모양이였다. 교하로 말하면 장철호의 중간정류소와도 같은 곳이였다. 그는 길림과 무송사이를 왔다갔다할 때마다 교하에 있는 강명근네 집에 들려 길림의 청년학생운동에 대하여 전해주고 길림에 돌아와서는 교하의 소식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강명근이 우리를 알게 되었고 나도 교하지방의 청년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그런 때에 강명근이 나를 만나려고 길림으로 찾아왔다.

내가 동대탄에 있는 장철호네 집에서 학교를 다닐 때였다.

나보다 나이가 열살이상이나 더 든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은 사업상 고충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털어놓고 안타깝게 방조를 호소할 때 나는 그에 대한 동정을 금할 수 없었으며 길림에서 180리나 떨어져있는 교하에서 보통중학생에 지나지 않는 나한테까지 찾아온 그의 혁명가다운 열정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교하현에서는 랍법산을 경계로 서북쪽에서 려신청년회가 활동하고 동남쪽에서는 랍법청년회가 활동하였다. 교하일대의 조선청년들은 대체로 이 두 청년단체에 망라되어있었다.

청년들은 처음에 큰뜻을 품고 조직에 들었지만 자리다툼이나 하고 군자금이나 거두어들이는 민족주의운동지도자들의 소행에 점차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프로레타리아혁명≫과 ≪헤게모니≫에 대하여서만 요란스럽게 떠들며 돌아치는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의 빈말공부에도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갈길을 찾지 못해 좌왕우왕하게 된다는 강명근의 그 심정이 리해되고도 남았다.

나는 길림일대에서 벌어지고 있은 청년학생운동의 실태와 우리의 활동경험을 강명근에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교하에 돌아가면 반제청년동맹지부를 내올수 있게 준비를 잘해보라고 하였다. 그가 돌아갈 때에는 여러권의 맑스-레닌주의서적도 주었다.

나로서는 성의를 다하여 깨우쳐주느라고 하였지만 강명근이 돌아간 다음 교하의 일이 마음놓이지 않았다.

나는 벼르던 끝에 로일령을 넘어 교하땅으로 찾아갔다. 그것이 아마 1928년 봄이었던 것 같다.

강명근은 나를 보자 그러지 않아도 길림에 한번 다시 찾아갈 생각이였다고 하면서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그가 하는 말이 길림에서는 막힐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정작 돌아와서 일을 하려고보니 걸리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였다.

교하의 농촌청년들은 우선 조직을 어떻게 내오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어떤 청년들은 려신청년회가 민족주의자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당장 거기서 나와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끼리 반제청년동맹을 뭇자고 하였으며 어떤 청년들은 려신청년회를 무작정 해산해치우자고 하였다.

조직에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도 그들은 올바른 견해를 세우지 못하고 누구는 ≪적대분자≫이고 누구는 ≪동요분자≫이기 때문에 조직성원이 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웬만한 청년들은 미리부터 다 대상에서 제껴놓고 있었다.

나는 그날 마실방에서 목침을 베고 그들과 같이 한자리에 누워 조직을 내오려면 군중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쟁취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람들을 이편저편 가르기 전에 꾸준하게 교양하고 설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었다.

청년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물을 먹지 않게 만들며 려신청년회와 랍법청년회안에 있는 선진적인 핵심청년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도 말해주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토론해주었다.

이렇게 한 다음 려신청년회에 망라되어있는 5명의 핵심청년들을 선발하여 교하반제청년동맹지부를 무어주었다.

나는 그후에도 교하지방에 자주 나가 반제청년동맹성원들과 사업하였다.

나는 동만청총안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조직에 묶어세우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룡정에 와서 고학을 하고 있던 조선청년들은 거의 모두가 동만청총에 망라되어있었다.

그들은 화요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조직부장으로 사업하던 동흥중학교 학생 김준이 우리가 길림에서 발간한 잡지와 소책자를 보고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나는 김준을 통하여 룡정일대의 청년운동형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김준은 길림에 왔다간 다음부터 우리와 련계를 가지고 대성중학교, 동흥중학교, 은진중학교를 비롯한 룡정시내 여러 학교의 청년학생들속에 우리의 사상을 선전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간도지방과 회령, 종성을 비롯한 6읍관내의 청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였다.

이 시기 나는 로동자들과의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였다.

당시 길림에는 화력발전소, 철도기관구, 성냥공장, 방직공장, 정미공장과 같은 크고 작은 공장들이 적지 않았지만 로동계급을 망라하는 신통한 조직은 없었다. 다만 1927년 봄에 조선인로동자들의 취직과 생활편의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성회가 조직되였을 뿐이었다.

우리는 길림화력발전소에 다니다가 농촌에 나온 한 청년을 교양하여 반제청년동맹에 받아들이고 그가 이전부터 일해왔다는 길림화력발전소에 다시 들어가게 하였다.

그가 길림화력발전소에 발을 붙이고 선진적인 로동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발판이 생기였다.

우리는 류길학우회 성원들을 발동하여 송화강선창을 중심으로 로동자야학을 조직하고 3.1인민봉기기념일이나 5.1절, 국치일 같은 때 그들을 찾아가 연설도 하고 연예공연도 하였다. 이런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1928년 8월에 반일로동조합을 내왔다. 그 책임자는 반제청년동맹의 핵심성원이었다.

청년학생들을 주되는 사업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의식화, 조직화를 다그쳐오던 우리가 활동판도를 로동계급속에까지 넓히고 그들을 조직에 묶어보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조선인로동자들을 중심으로 무어진 이 반일로동조합을 통하여 합법적단체인 한성회를 움직이게 하였다. 한성회는 점차 정치적인 경향이 뚜렷해져갔다. 후에 한성회는 원산로동자들의 총파업을 돕기 위해 동정금을 모아 원산로동련합회에 보내였고 1930년 여름 조선에서 있은 수재때에는 여러 조선인단체들과 협동하여 구제회를 뭇고 수재민들을 위해서 의연금을 수집하였으며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였다.

길림과 교하 일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영향밑에 있던 청년단체들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매우 유익한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혁명가의 생명은 군중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며 군중을 떠날 때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다.

≪ㅌ.ㄷ≫를 뭇던 화성의숙시절이 나의 청년학생운동의 시작이었다면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고 확대해나가던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은 학생의 테두리를 벗어나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속에 깊이 침투되어 도처에 혁명의 씨앗을 부려가던 나의 청년운동의 전성기였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동과 그 영향력을 사람들은 ≪길림바람≫이라고 하였다. (끝)

길림시가

일화

오각별 빛나는 조선지도

전쟁이 일어난 날 아침, 평양에서는 내각비상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였다. 적들의 전쟁도발에 대처한 국가적 대책을 토의하기 위한 중대회의였다. 내각청사회의실에서는 내각비상회의에 참가할 당, 국가, 군대 간부들이 긴장한 얼굴로 회의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과 연결된 복도쪽에서 김일성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쩌렁쩌렁한 음성이 회의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걷어날리며 들려왔다.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회의장분위기는 장군님의 이 말씀에 의해 대번에 밝아졌다. 불세출의 위인, 강철의 담을 지니신 장군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전쟁의 운명을 판가름하시고 전국, 전민을 승리한 전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신 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전해들으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도 전쟁은 시작이지만 그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였다.

전쟁 초기 사태발전은 이것을 잘 보여주었다.

오만무례한 원쑤들의 북진공격을 좌절시킨 인민군대는 적을 38도선이남으로 내몰고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침략자들을 연속 답새겼다. 6월 28일에는 서울이 해방되었고 7월 20일에는 대전이 해방되었다.

영도자님께서는 나이가 어려 몸은 비록 후방에 계셨으나 마음만은 인민군대와 함께 남진의 길에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로 연이어 전해지는 인민군부대들의 혁혁한 전과소식은 그분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벽에 걸어놓은 조선지도에서 인민군부대들에 의하여 해방된 이남의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보시던 그분께서는 하나의 생각이 섬광과도 같이 번쩍이였다.

인민군부대들에 의하여 해방되는 도시와 마을마다 오각별을 붙여나가느라면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수며 노도와 같이 남진하는 인민군용사들과 발걸음을 같이하게 될 것이고 마을사람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게 될 것이였다.

가슴속에 묻어둘 수 없고 혼자서 묵새길 수 없는 것이 이런 기쁨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빨간 종이로 오각별을 따가지고 그것을 조선지도의 해방지역마다에 붙이시었다. 별도 큰 오각별과 작은 오각별을 만들어 서울, 대전을 비롯한 큰 도시들에는 큰 오각별을 붙이시었다.

동무들과 마을사람들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그분께로 찾아가 인민군대가 미국놈들을 어디까지 밀고나갔는가를 알아보고는 희색이 만면해서 돌아가곤 했다.

조선지도의 붉은 별이 늘어날수록 남녘의 해방민중은 날마다 늘어났고 영도자님의 마음 또한 남녘민중과 함께 감개가 무량함을 어쩔 수 없었다. 해방지역에서 민주선거가 실시되어 인민위원회가 복구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인민적 시책으로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남녘의 근로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기뻐할 때 어리신 영도자님께서도 박수를 보내곤 하시었다.

전쟁은 준엄했다. 미제를 비롯한 침략자들은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전쟁을 확대했다. 그리하여 전쟁은 장기성을 띠였고 그만큼 시련의 국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일**영도자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필승의 신념만이 차고 넘쳤다. 그분의 모든 사색과 행동, 생활 전체가 이러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원쑤들의 맹폭으로 거리와 마을이 잿더미로 변하고 산과 들이 불타버릴 때에도 승리한 후 일떠설 새 거리와 마을을 그려보시었고 푸른 녹음으로 뒤덮일 조국의 아름다운 산야를 생각해보시었다. 여기에 전쟁을 이겨가시는 그분의 철의 의지가 있었다.

송가

2월의 새풍경

구국의 소리 주체 91, 2월 18일～19일

동대문시장에서도 탑골공원에서도
예전처럼 소곤소곤 귀속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놓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바로 2월 16일
김정일장군님 탄생일이라고

서울의 대학생도 울산의 노동자도
예전처럼 조심조심 눈치보며 아니라
이제는 주저없이 속을 터놓습니다
저 철책선만 아니라면
장군님생신날 평양으로 달려가
삼가 인사를 올리는건데

저것 보세요 거리와 마을들에 하얗게 깔린
2월 명절 경하의 전단들
다투어 집어보는 사람들 손길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앉아 장군님칭송의 비디오를 보며
환성을 터치는 집들의 창가마다
예전처럼 커튼을 치지 않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남도 이제는 어디가나 장군님세상입니다
경향에 펼쳐지는 2월의 새풍경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이 그려낸
역사의 진실한 명화폭입니다

흠모

김정일동지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기둥이시다

가나민족민주대회 총 비서 후우두 야하야는 오늘 조선노동당건설과 활동에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성과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일심단결, 사회주의 민족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은 그 어느 것이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공산당연맹 소련공산당이사회 위원장 올레그 쉐닌은 조선노동당은 인민의 수령들이신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도 밑에 지난 50여 년간 영웅적 조선인민이 달성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의 주요 원동력으로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거대한 위훈을 세움으로써 위대한 수령의 정확하고 현명한 영도를 받는 인민만이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고 하면서 그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처럼 계급투쟁에서 세련된 당과 함께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해 전진하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지적하였다.

파키스탄사회주의당 위원장 씨. 아르. 아슬람은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이론에는 노동계급의 당이 당건설과 활동에서 철저히 구현해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칙과 기초, 방법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조선노동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였을 뿐 아니라 당과 대중의 깨뜨릴 수 없는 관계를 이룩하고 당의 영도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페루좌익혁명동맹 전국집행위원회 총 비서 따니발레르 로뻬라는 오늘 조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당과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 세워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의 통일위업을 빛나게 향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확고히 계승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연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 비서 니나 안드레예바는 뗄 수 없이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된 조선노동당마크의 마치와 낫, 붓은 사회적 진보와 전 민족의 복리를 위해 새로운 고지를 향하여 확고히 전진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불패의 단결을 상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는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영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이 앞으로도 사회주의의 원칙과 방법에 의거하여 조선민족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끊임없이 발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 나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민족의 자랑 시대의 영광

구국의 소리, 2.16특집논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태양으로 만민의 추앙을 받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는 이 뜻깊은 시각 각계 애국민중은 절세위인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해서 가슴은 마냥 설레고 있으며 그분의 향도밑에 천리길 만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갈 불굴의 신념에 넘쳐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유구 반만년의 역사에서 우리 단군민족이 지구촌의 중심에 우뚝 서 자주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자랑찬 민족으로 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무상의 영예는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광복대전으로 찾아주시고 세워주신 주체의 이상향 이북을 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더욱 반석같이 가꾸어가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신 최대의 민족적 선물입니다.

일찍이 조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성상 그분께서는 오직 조선을 빛내이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을 성공리에 이끄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다바치셨으며 그 노정위에 민족만대에 기리 빛날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자주정치의 대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민족과 겨레의 운명개척의 방향타로 거머쥐시고 그 휘황한 빛발로 이북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인류의 이상향을 더욱 반석같이 가꾸고 활짝 꽃피워주셨습니다.

더욱이 최근 수년간 그분께서는 북으로 쏠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적 책동을 선군정치의 위력한 무기로 짓부수고 민족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셨습니다.

지난날 은둔국 식민지약소국으로 세계에 빛을 잃었던 우리 민족이 지구촌의 각광을 받는 위대한 민족으로 발돋음한 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주석님과 그분의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북땅위에 빛내이시기 위해 정력적인 투쟁을 벌여오신 **김정일**장군님의 역사적 공적입니다.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최고의 애국으로 여기시고 **김일성**주석님의 통일경륜을 이 땅위에 하루빨리 실현하시기 위해 헌신하셨으며 통일의 새로운 서광을 안아오신 분도 **김정일**영도자님이십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통일애국의 의지로 **김일성**주석님의 통일경륜을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광폭의 도량으로 7천만 겨레를 한품에 안으시어 민족통일의 한 전선에 세워주셨을뿐 아니라 비범한 예지와 대용단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55시간이라는 역사의 한순간에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하심으로써 민족의 앞길에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류의 자주위업을 역사적 사명으로 간주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또한 자주성실현의 휘황한 활로가 열리고 그분의 탁월한 영도와 높으신 국제적 권위로해서 오늘 지구촌은 영광찬란한 **김정일**세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온 인류가 그분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러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범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민족과 인류사에 영원불멸할 대업적을 이룩하고 계시는 만고절세의 위인 **김정일**장군님 계셔 끝없이 빛나는 민족의 존엄이 있고 무궁번영할 통일조국의 휘황한 앞날이 있으며 인류의 자주적인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정녕 민족과 인류의 운명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시며 후손만대의 번영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자랑이고 시대의 영광입니다.

하기에 경사스러운 민족최대 2월의 명절을 맞는 이 뜻깊은 시각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을 안고 그분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으며 그분을 따라 천리만리의 험로역경도 과감히 헤쳐나갈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랑과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통일경륜을 높이 받들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서 영광의 통일단상에 장군님을 모시고 자자손손 복락할 역사의 그날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24일

부시 이한에 즈음한 논평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는 21일 논평을 통해 부시가 방한기간 악의 축발언에 대한 철회나 사죄 한마디없이 시종일관 자기의 망언을 정당화해 나섰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부시가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은 급격히 고조되는 반미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적인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논평은 부시가 이번에 보여준 것은 전쟁과 대결의 욕망이며 따라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 긴장고조책동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대립과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한번 시작한 반미반부시투쟁을 전쟁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될때까지 줄기차게 확대, 강화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부시 한국행각 결과 규탄
자통협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는 21일 부시의 한국행각결과를 규탄해 성명을 냈습니다.

자통협은 성명에서 동족인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의사를 밝혔던 부시가 한국행각과정에서도 악마의 화신으로서 본색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이번에 부시가 북에 대해 악이라는 발언을 연신 늘어놓음으로써 그의 패권적인 대북적대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부시가 북에 대한 대대적인 왜곡을 일삼는 것은 북을 침공하고 제2의 6.25전쟁을 획책하고자 하는 자신의 본색을 숨길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부시야말로 악의 화신이라면서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첨단 재래식공격무기를 동원해 전세계 민중들을 아프간 민중처럼 살육할 수 있는 세계유일의 테러집단은 부시정권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세계 제1의 경제력을 갖고도 8천만 미국인들을 슬럼가에서 살게 방치하고 국방비는 매년 수백억달러씩 늘리면서도 사회보장제는 도리어 후퇴시키는 부도덕한 집단은 부시정권뿐이며 다른 나라들에 구조개혁을 외치고 전쟁위기를 조장하여 경제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인면수심의 집단은 부시정권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북의 미사일위협은 미국내 전쟁광들에 의해 왜곡조작된 허황한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간섭과 전쟁책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의 태양 받들어 민족의 숙원 이룩하자

구국의 소리 2.16특집 논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최대 인류공동의 경사절인 2월의 명절을 맞고 있는 한민전의 전위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가슴은 지금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한 통일경륜을 받들어 이 땅위에 통일된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안아오려는 철석의 의지와 불같은 열망으로 끓고 있습니다.

뜨거운 민족애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넓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두텁게 얼어붙은 분단의 장벽을 녹이시어 7천만 겨레 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은 민족의 앞길에 밝은 서광을 안아오시는 통일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일찌이 ≪조선은 하나다≫라는 신념으로 **김일성**주석님의 필생의 염원인 통일위업의 완성을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쳐오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주석님의 통일경륜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조국통일5대방침 등 수많은 통일방략들을 제시하시어 겨레의 통일대행진을 승리에로 이끌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분께서는 분열로 인해 당한 민족의 고통을 한시바삐 가셔주시기 위해 미증유의 대용단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영원불멸할 금자탑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새 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민족의 앞길에 보란듯이 세워짐으로써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기에 2월의 명절을 맞는 이 뜻깊은 시각 우리 겨레는 민족의 통일진군을 힘차게 전진시키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분의 향도따라 통일애국의 길에 헌신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는 겁니다.

올해는 한평생 민족의 통일을 위해 모든 걸 다바쳐 오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이 되는 뜻깊은 해이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에서 전환적 의의를 갖는 공동선언발표 2돌이 되는 해입니다.

이 해에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의 높은 영마루에 올라서야 합니다.

이 시대적 요청과 겨레의 지향을 감안해서 이북에서는 지난 1월 22일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를 열고 올해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할데 관한 중요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고 5월부터 7.4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7월을 거쳐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걸 제의했습니다. 이북의 이 3대호소, 3대제의야말로 민족사랑, 겨레사랑의 의지가 반영된 애국애족의 제의라 하겠습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칠때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차단봉도 사나운 광풍도 뚫고 능히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민족의 통일대행진에 적극 합류해야 합니다.

당면하여 이 땅에서 외세와 공조해서 동족을 주적으로 보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세력을 반대하고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국보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며 통일의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겁니다.

조국통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자주통일에로 향한 거세찬 민족사적 흐름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7천만이 우러르고 따르는 통일의 태양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셔 조국통일은 확정적입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적 자긍심을 안고 올해 그분의 향도따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의 대결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정일장군

구국의 소리 2.16특집

하나로 뭉친 민중과 군대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것과 같은 비극적 사변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다. 서방의 반사회주의적 사조가 일련의 나라들을 개혁과 개방정책에로 이끌어갔다.

서방은 저들의 목적이 성취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 사실을 두고 사회주의종말에 대해 떠들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반사회주의세력은 사회주의조선에 집중적인 공격을 들이댔다. 그들은 핵의혹이라는 구실밑에 사회주의조선에 군사정치적 압력을 가했으며 이 나라에 대한 경제봉쇄조치를 취하였다.

재난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와 몇년째 연속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식량난을 포함한 심각한 경제적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게다가 조선민중은 **김일성**주석님을 뜻밖에 잃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김일성**주석의 서거는 조선민중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리하여 조선사람들은 엄혹한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나날 전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쏠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운명을 두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였다.

사회주의를 고수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던 그 엄혹한 상황하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조선의 **김정일** 영도자의 구체적인 행동여하에 달려 있었다.

조선이 제국주의연합세력에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해야할 어려운 정세에 대처하여 **김정일**장군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영도방법을 실현해 나가기로 결심하셨는데 이것은 선군원칙을 지침으로하여 그리고 군대에 의거하여 국가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사회주의위업전반을 전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선군영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군민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대와 민중은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2대 역량으로 되고 있다.

역사는 영토가 아무리 크고 또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해도 군민의 일심단결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오늘날 세계유일초대국으로 행동하고 있는 미국은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강요하고 다른 나라 영토를 마구 폭격하고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드릴 용단을 감히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이 나라의 군사력은 물론 군민의 일심단결을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결에서의 승리

미국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거듭 떠들면서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왔으나 마침내 체제인정서를 들고 나왔으며 북미기본합의문(1994년)과 북미공동코뮤니케(2000년) 등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고 국무장관과 기타 대표들을 자기의 첫째가는 적으로 간주하던 이 나라에 파견하지 않을수 없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미국과의 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셨으며 한편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셨다. 그분의 비범하고 너그러운 인품과 정치적 의지에 의하여 마침내 국토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북남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칙적이고도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이탈리아가 조선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그후 1년 남짓한 기간에 유럽연합의 거의 모든 회원국들과 캐나다, 브라질 등 여러 나라들이 길을 따랐다.

호전광 부시, 주한미군 계속 주둔 망발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4일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미국대통령 부시는 *******오산 미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민중과 국제사회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라 하겠습니다.

미군의 한국강점은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창조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이라는 가슴 아픈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한반도의 분열로해서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은 지난 50년대에 3년간의 전쟁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자주와 협력의 길로 나가고 있는 현시대에 우리 민중은 장장 50년이 넘도록 식민지통치하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미제침략군의 장기주둔과 새전쟁도발책동은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실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각계층 민중은 더이상 미국의 지배밑에 살기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우리 민중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미군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남북사이에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됐습니다. 6.15공동선언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 땅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수시킬 용단을 내릴때가 되었고 그 실현이야말로 조국을 통일할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방한해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떠든 것을 어찌 용납할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오랫동안 강점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벌써 철수했더라면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험마저 가셔지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유리한 국면이 열릴수가 있을 것이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주한미군을 마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떠든 것은 본질에 있어서 한국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장악하고 북을 언제든지 불의에 침략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 놓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우리 민중의 염원에도 맞는 것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시는 시대착오적인 한국강점정책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주한미군과 핵무기들을 철수시키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미군이 이 땅에서 주한미군과 핵무기들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반미항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분열이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각계 민중은 부시가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을 묵과하지 말고 힘을 합쳐 미군철수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이 요청하는 반전반미투쟁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0일~22일

미국의 대북강경책동과 북침전쟁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시가 ≪연두교서≫라는데서 ≪악의 축≫발언으로 이북을 자극한데 이어 워싱턴의 고위관리들이 연일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수출설을 내돌리며 전력증강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라는 걸 만들어낸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얼마전 주한미군은 미사일방어체제를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북을 상대로 엄중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부호전세력들이 함께 가담해 미국의 전쟁책동에 발을 맞춤으로써 남북관계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미공군 계간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최근 전역미사일방어체제실현을 위한 본보기로 되고 있는 기구창설을 완료했다. 이 기구창설에 한국군도 참가했다.≫고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더 이상 존재명분이 없어진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설을 계속 강변하면서 전력증강과 전쟁책동에 광분하던 미국이 이번엔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라는 걸 만들어낸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한반도에서 패권적 지위와 영구적 지배력을 공고화하기 위한데 있는 겁니다.

미국은 저들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북의 미사일위협론을 떠들면서 이 땅에 요격미사일을 적재한 이지스함과 요격미사일레이다를 배치하려 하고 있으며 오산, 평택 등지의 땅을 미군기지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설된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이 사실상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걸 잘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할수 없는 건 미사일방어체제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고 하던 군당국이 민중들을 기만하고 비밀리에 이 기구창설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구창설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당국이 그동안 민중을 상대로 완전한 거짓선전을 해왔다는 걸 잘알수 있습니다.

어제는 외세에 추종한 비상경계조치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키고 오늘은 외세와 야합해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에 가담해 나섬으로써 동족의 머리위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고 하고 있으니 과연 당국에 통일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당국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고 한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와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7천만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겁니다.

얼마전 한총련의장이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창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와 같이 지금 경향각지에서 미국과 군부호전세력들의 엄중한 전쟁발발책동에 항의한 민중의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미국과 군부당국이 우리 민중의 항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분별한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여건에서 핵전쟁의 참화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생사존망이 엄중히 위협당하는 이 시각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새해벽두부터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반전반미항전에 과감히 나설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미국과 군부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책동을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지 말아야 하며 민족자주,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전반미, 조국통일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할겁니다.

≪현실이 요청하는 반전반미투쟁≫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반전반미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미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미국의 허장성세앞에서 주눅이 들고 이른바 초대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차례올 것은 패배주의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무궁무진한 주체적 역량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민족의 자주역량을 고수, 수행하면 그 어떤 강대한 제국주의세력이라도 능히 꺾을수 있다는 자신감과 필승불패의 각오, 이것이야말로 반미투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사상적 요인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지금 마치 제왕처럼 으시대지만 이미 그의 강대성의 신화는 세계의 면전에서 산산조각난지가 오래죠. 그리고 부시의 이번 방한도 선군의 기치 드높이 전진하는 이북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살길을 찾아보려는데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런 것도 모르고 이회창을 비롯한 부시의 졸개들은 마치 구세주나 만난듯이 아양을 떨며 추태를 부렸으니 천하에 그런 바보들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허장성세뒤에 감춰져 있는 미국의 약점을 꿰뚫어보고 반부시반미반전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겁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26일

2.16경축행사 진행 조선재외대표부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네팔, 캄보쟈, 이란, 인디아, 방글라데슈, 수리아, 에티오피아, 기네, 나이제리아, 리비아, 뽈스까,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로므니아, 프랑스, 체스꼬, 벌가리아, 스웨리예, 뻬루, 메히꼬, 로씨야의 나호드까주재 조선대표부들과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부, 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조선상설대표부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연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와 지역의 정계, 군부, 실업계, 학계, 문화예술계, 출판보도계 인사들, 각국 외교대표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와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이 초대되였다.

또한 유엔사무국과 산하 협조기구 공무원들,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책임자와 부책임자들이 행사들에 초대되였다.

행사들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김정일**령도자께 최대의 영광과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 그이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영광 빛나는 백두산고향집≫ 등 조선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유엔사회발전에 관한 위원회40차회의 조선대표연설

12일 유엔사회발전에 관한 위원회 제40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가 연설하였다.

연설에서 그는 사회경제정책을 융합시켜 사회발전을 이룩하는데서 기본은 사회발전에 대한 정부들의 관점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시책을 실시하려는 정치적의지를 보여 주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전반적무상치료제, 무상주택보장을 비롯한 인민적시책이 실시되여 사람들의 사회생활권리를 완전히 보장해 주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년간 거듭되는 자연재해와 적대세력들의 정치경제적압력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정부의 사회적시책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무료교육, 무상치료와 수만세대의 살림집과 봉사시설건설 등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인민적시책비로 국가예산의 많은 몫을 돌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공화국정부는 국내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출을 우선적으로 보장할뿐아니라 해외동포들의 교육발전을 위한 자금지출도 정상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사상과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간중심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였기때문이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적시책을 계속 고수해 나감으로써 유엔사회발전에 관한 위원회 수뇌자회의와 새 천년기유엔수뇌자회의에서 제시된 사회발전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이바지할것이다.

저주와 랭대에 부딪친 부쉬행각

조선중앙통신

미국대통령 부쉬가 지난 19일 숱한 ≪핵심참모≫들과 ≪실무진≫들을 이끌고 남조선에 기여 들었다가 극도의 저주와 랭대를 받고 21일 날아 갔다.

남조선에서는 이번 부쉬의 행각을 전후하여 ≪부쉬행각결사반대≫ 등의 구호하에 청년학생, 로동자, 농민, 종교인, 문예인, 언론인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각층과 그들을 망라한 60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의 총 발동에 의한 전례 없는 규모의 투쟁이 벌어 졌다. 부쉬를 ≪악의 화신≫으로 단죄하는 목소리가 비발치는 가운데 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공개질의서, 평화선언문, 항의서한들이 쏟아 져 나왔다.

서울, 부산 등 도처에서 미국기발이 불길에 휩싸였는가 하면 부쉬의 오만한 상판을 가장한 시위대오가 떨쳐 나와 그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랭대를 표시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련일 벌어 진 수많은 집회, 시위들에서는 부쉬를 전쟁의 주범으로 락인하고 전쟁반대, 6.15공동선언고수관철, 미군철수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부쉬방한반대≫ 구호를 웨치면서 벌린 미국대사관 점거투쟁과 대사관앞에서의 기습시위도 있었으며 미국대사관에 오물벼락이 들씌워 지고 반미성명문이 뿌려 졌다. 서울의 미상공회의소 유리창에는 ≪부쉬방한 반대한다≫라고 쓴 현수막이 내걸렸다.

반미항전의 직접적동기는 부쉬의 호전적인 ≪악의 축≫폭언과 그것이 제2의 조선전쟁발발과 잇닿아 있으며 나라의 영구분렬과 ≪민족공멸≫을 초래한다는 공통적인식, 미국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전인민적항쟁에 휘말려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기전에 조선민족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미군을 끌어 내가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조선통일의 최대의 방해군 미군 로동신문

미국대통령 부쉬가 올해 ≪일반서신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을 ≪악≫과 결부시켜 전쟁폭언을 한데 이어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인물들이 ≪상용무력≫이요, ≪대량살륙무기개발≫이요 하는 누구의 그 무슨 ≪위협≫설을 광고하면서 ≪군사력행사≫니 ≪선제군사행동≫이니 하는 호전적폭언을 마구 줴치고 있다.

≪로동신문≫ 24일부는 이러한것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책동이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은 말로는 조선반도의 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듯이 하지만 실지로는 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이전의 대결, 전쟁상태로 되돌려 세우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 있다. 부쉬가 우리 공화국을 터무니없이 걸고 드는것은 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고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통일과정을 차단하며 나아가서 정세를 긴장시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 간악한 속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조선반도에 모처럼 마련된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깨고 우리 민족에게 또 한차례의 전쟁을 강요하려는 미제야말로 조선의 통일의 최대의 방해군이며 호전광의 무리이다.

저들의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민족의 원쑤들과도 입을 맞추고 동족을 해치는것도 서슴지 않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인 역적무리는 력사와 민족의 심판을 면할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그 어떤 힘으로도 자주통일로 향한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 막지 못한다.

노작출판 베네수엘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베네수엘라 깐따끌라라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주체86(1997)년 6월 19일에 발표된 이 로작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 근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밝혀 져 있다.

조선대사관축하방문 여러 나라 인사들

2.16에 즈음하여 벌가리아 뻬르니크시의회 의장과 부시장, 에뜨로뽈레시 시장, 지미뜨로브그라드시 시장, 벌가리아태권도련맹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8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조선대사관을 축하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초상화에 꽃다발들을 증정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시 및 단체 명의로 드리는 축전을 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에짚트의 민족민주당 총비서, 민족진보통일련합당 총비서, 10월6일도시 시장,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도 13일 조선대사관을 축하방문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에 각각 꽃바구니들을 증정하였다.

한편 파키스탄군 합동정보총국장은 16일 조선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여 왔다.

우리 수령제일주의

공동사설해설 - ≪로동신문≫ 주체91, 1월 14일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올해공동사설에서는 우리 수령제일주의를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웠다.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김일성**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여기에서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바로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한다는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가 제일이며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민족이 제일이라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수령은 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다.

수령의 위대성에 민족의 번영이 있고 강성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으며 찬란한 미래가 있다.

우리 인민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 높은 인민이다.

지난 날 제국주의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 당하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자주정신이 강한 존엄 있는 인민으로, 우리 식의 독창적인 사회주의길을 개척하고 강성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쳐 가는 영웅적인민으로 되였다.

현대조선의 창조와 변혁의 력사, 우리 인민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으로 되는 모든 귀중한 전취물들은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하나로 결부되여 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의 결정체이다.

우리 인민의 존엄과 영예는 위대한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더욱 높이 떨쳐 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시고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만민이 우러러는 21세기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과 군대가 금성철벽의 당,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고 우리 조국이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위력떨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만을 떨치는 존엄 있고 긍지 높은 인민으로 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지난 세기 90년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고립압살책동을 물리치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은것도, 오늘 주체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21세기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것도 특출한 정치실력가이시며 희세의 정력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있기때문이다.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재생과 륭성을 가져다 준 생명수이며 우리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과 강의성, 높은 창조적위력의 근본원천이다.

우리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가 제일이며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민족이 제일이라는 순결한 마음이 자자손손 우리 인민의 넋으로 영원히 이어 지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무엇인가.

– 위대한 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이 제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위인이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자주시대 혁명의 가장 곧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 새 생활을 창조하며 승리를 떨쳐 온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계기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전인민적사상감정이 온 사회에 꽉 차넘치게 하며 누구나 다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충실성의 전통을 영원히 계승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틀어 쥐고 나가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일관성 있게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이다.

우리는 이 땅우에 인민들이 존엄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강성대국을 일떠 세우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로고를 한시도 잊지 말고 그를 영원히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수령제일주의정신은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데서 과시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은 원자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행동의 구호, 실천의 구호이다.

오늘 우리 당은 말 잘하는 일군보다 일 잘하는 일군,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어깨를 들이밀고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실천가형의 일군, 실력가형의 일군을 요구한다. 당이 준 과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달라 붙을 때 못해 낼 일이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와 높은 실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해 나감으로써 새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보다 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끝)

어버이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2회

학사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26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6번에 나누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중에서 가장 큰 업적인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 계시는데 있습니다.

수령의 영생위업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생전시와 다름없이 충성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위업입니다.

수령을 생전시와 다름없이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은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에 의해서 어지럽혀진 공산주의적 도덕의리를 국제적 범위에서 복구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체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영생위업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어버이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는 역사적 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는 사업에 최대의 충정을 바치시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의사당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릴데 대한 역사에 유례없는 조치를 취하신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금수산의사당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오랜기간 계시면서 당과 국가사업, 조선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혁명의 대전당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라면 어떤 기성관례로 따르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 식대로 해야한다는 불변의 신념을 지니시고 주체83(1994)년 8월초 어느날 금수산의사당을 기념궁전으로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수반이 서거하면 묘를 다른 장소에 쓰고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집무실은 후대 수반들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었습니다. 하기에 어버이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종전의 관례대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계시면서 집무를 보시던 금수산의사당에 변함없이 계셔야한다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지니시고 금수산의사당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미도록 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버이 수령님의 채취가 그대로 어려있는 금수산의사당에 수령님을 모심으로써 수령님께서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무궁토록 영생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충성심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체83(1994)년 10월 금수산의사당에서는 역사에 특이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소집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정치국회의에서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정에 넘치는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 수령님처럼 위대한 인민의 수령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신 어버이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을 생전에 계실때보다 더 잘, 그리고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이날의 정치국회의는 금수산의사당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고 이곳에 어버이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수령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이 회의가 있은 이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오늘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오늘의 내각)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반영해서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하고 궁전안에 어버이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안치해서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을 생전에 계실때보다 더 잘,
그리고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금수산의사당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도록 하시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신 것은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충성심의 최고 정화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시는 위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령의 영생은 생전의 모습으로 언제나 인민과 함께 계시는 영생입니다. 수령이 생전의 모습 그대로 영생하여야 인민들은 수령의 영상을 우러르며 힘과 용기를 얻고 수령은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게 됩니다.

또한 인민은 수령과 호흡을 함께 하고 숨결을 같이 하면서 마음속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수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유대는 생전시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며 수령은 인민과 함께 영생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모셔야 한다는 충성의 의리를 지니시고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발기하시고 온갖 지성과 충정을 바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속에서도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기 위하여 몸소 기술문헌자료들을 연구하시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도 요해하시는 한편 유능한 과학기술 일군들이 현대의학을 비롯한 최신 과학기술 성과들을 받아들여 어버이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대로 모시는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해당일군들을 다른 나라들에 파견하시여 그 나라들에서 수반들의 영구를 보존하고 있는 실태와 경험을 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외대표부들에도 과업을 주시어 어버이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기 위한 사업과 관련한 기술문헌자료들을 수집해서 조국으로 보내오도록 긴급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해서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높이 모실 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8(1999)년 4월 25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어 어버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5년이 되어오지만 수령님의 얼굴모습이 이전보다 더 환하게 보인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기 위한 완벽한 대책을 제때 세운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였는가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달려가 어버이 수령님을 찾아뵙고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올리며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앞에서 충성의 맹세를 다지곤 합니다.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 어버이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여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인민들 마음속에 인민과 더 가까이에 계시게 되였고 수령님과 우리 인민의 혈연적 유대는 그 무엇으로서도 깨뜨릴 수 없는 영원불변한 것으로 되였습니다.

참으로 태양의 성지에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시대와 역사앞에 조국과 인민, 세계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됩니다.

하기에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한 외국의 한 정치활동가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금수산기념궁전을 돌아보면서 머리속 깊이 인 찍혀진 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영생하신다는 진리,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면 정치사와 혁명사에 그 아무리 파란만장한 시련과 난관이 겹으로 층층 쌓여진대도 조선혁명위업뿐아니라 세계 사회주의위업의 붉은 노을은 지구를 덮으리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외국인만이 아닌 금수산기념궁전을 돌아본 세계 진보적 인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심정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어버이 수령님께서 영생하시며 인류의 자주위업은 영원히 자주의 궤도를 따라 승리의 한길로 전진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혁명실록이 엮어진 지난 6년간은 어버이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는 수령영생위업이 빛나게 실현된 충성의 역사이며 공산주의 도덕의리의 위대한 모범이 창조된 자랑찬 연대기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건립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신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맥도널드 불매운동 ≪반미 행동전≫확산

≪스포츠테러≫라 불리는 이번 사태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번사태를 접한후 사이버시위 – 관련사이트 다운시키기 – 오노선수 이메일 보내기 – 김동성선수 금메달 수여를 위한 모금활동을 벌여오다가 이제는 이와 관련된 각종 패러디 창작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창작물은 영화 친구,반지의제왕 등을 패러디한 포스터와 윤민석씨의 ≪Fucking U.S.A≫ 뮤직비디오, 동영상 등이 인터넷 상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만 이뤄지던 네티즌들의 ≪반미≫감정은 이제 본격적인 행동전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국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맥도널드 불매운동≫을 꼽고 있다. 곳곳의 사이트에 확산되고 있는 맥도널드 불매운동 ≪선언문≫에 따르면 ≪일본신문기자가 우리나라는 36년 일제치하,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어도 ≪보복이 없는 나라≫라고 규정했다≫며 ≪이제는 쉽게 잊지말고 반드시 복수를 합시다≫면서 ≪미국놈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불매운동이다. 미국의 상징인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지말자≫고 주장했다.

한편, 미 언론사를 비롯 국내 언론사 사이트 등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각종 설문조사가 진행중이다. 미 CNN에서는 현재 이번 올림픽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벌이고, 이번 올림픽에 메달을 준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설문결과는 25일(월) 오전 금메달과 메달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평가가 각각 29%와 37%를 차지하고 있다. MBC에서도 김운용 회장의 폐회식 불참 철회 입장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묻고있다.

장세훈/최범수 기자
2002/02/25 ⓒ2002 Unews

동계올림픽 북미 편향 반미열기 고조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솔트 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폐막을 하루 앞둔 24일, 화려함과 정신적 단합 분위기 속에서 지난 8일 개막된 이번 대회가 북미 편향에 대한 비난이 포함된 격한 반미 열기 속에서 끝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 동계올림픽 결산기사를 간추린 것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평등의 원칙은 대회 사흘째 피겨 스케이이팅 페어부문의 캐나다 선수 데이비드 펠리티어와 제이미 살레가 많은 관중들의 견해와는 달리 금메달을 놓치는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올림픽은 거의 매일 2개의 트랙을 달리며 진행됐다. 그 하나는 매혹적이고 기분을 고양시키는 선수들 간의 경쟁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반발과 비난을 좇아가는 것이었다.

이번 대회는 맛이 신 포도와 같은 올림픽이었다. 어떠한 경기 결과도 그 이후에 열리는 청문회가 끝나기 전 까지는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한국 팀은 몇몇 종목에서 심판의 판정에 항의, 대회를 거부하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이와 동시에 시간을 되돌려 잠복하고 있던 냉전시대의 적개심을 되살리는 대회이기도 했다. 심판이 미국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아폴로 앤튼 오노에게 말썽의 소지가 많은 금메달을 안겨준 데 항의하는 한국 팬들의 비난은 1만6천 통의 분노에 찬 e메일 메시지가 폭주해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등 사이버 스페이스로 진입했다.

캐나다 선수들에게 공동 금메달을 수여토록 한 타협은 많은 캐나다와 미국인들에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가졌을지 모르나 다른 국가들에게 그것은 북미 언론동맹이 올림픽 지도자들에게 완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한 증거로 비쳤다.

한국팀의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코치인 전명규 씨는 김동성이 실격 처리됨으로써 오노가 승리했다는 판정이 나온 뒤 ≪미국 언론인들이 거짓말만 쓰고 있다≫고 분개했다.

러시아 선수단은 21일, 폐막식은 물론 앞으로 열릴 올림픽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자크 로게 위원장이 러시아의 불만사항 리스트를 접수해 IOC 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데 동의함으로써 겨우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강일중 특파원
2002/02/25 뉴욕=연합뉴스

부시 반대 집회 과잉진압 각계 항의

시위대 · 취재기자에 무차별 폭력 가해
≪집중분석≫ 시민단체, 책임자 처벌 요구 법적 대응키로

≪26일 금강산에서 행사가 있어 방북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얼굴로 갈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 북쪽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겠느냐. 부시 방한 반대 시위에서 다쳤다고 하면 북쪽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좋은 반미 선전 도구가 또 있겠나. 도대체 성조기 태운다고 진압하는 경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20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얼굴 8곳에 50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대표의 탄식이다.

이김현숙 대표는 ≪여성단체 인사들과 비둘기를 들고 잔디밭 근처에 앉아 있다가 성조기 소각을 막기 위해 집회장에 난입한 경찰들에게 방패와 경찰봉 등으로 폭행 당했다≫며 ≪주변에 있던 사람의 얘기로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찰쪽에서 던진 물체에도 맞았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경찰의 진입과정에서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집회를 주최한 전국민중연대(people.jinbo.net/main.php)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김은숙(평원중학교 여교사) 씨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민주노동당 구로을 지구당 서웅석 부위원장이 이마를 다쳐 10바늘을 꿰맸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간사도 경찰방패에 찍혀 머리에 6바늘을 꿰맸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장면도 목격됐다.

전국민중연대는 지난 22일 한겨레신문에 피해자들의 신고를 요청하는 광고를 싣는 등 피해사례 확보에 나섰다. 전국민중연대는 피해 사례를 집계해 책임자 고발과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5일 오전까지 고려대생 5명 등 15명의 부상자가 신고됐다.

집회참석자들 뿐 아니라 취재진도 경찰의 공격대상이 됐다.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MBC 이주훈 기자가 진압경찰 10여명에게 둘러싸인 채 목을 졸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당했으며 카메라가 부서졌다. 이 밖에 AP, 로이터, SIPA 등 외신 기자들도 경찰의 공격대상이 됐고,외신들은 화면과 함께 이 사실을 보도했다.

MBC 김택곤 보도국장은 ≪경찰에 진상조사를 요청해 담당자들에 응분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취재진에게 이 정도였으면 일반인에는 어느 정도로 했을지 짐작이 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의 한 간부가 MBC에 사과방문을 갔다가 욕설을 듣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20일 집회에서의 경찰의 난입뿐 아니라 그 뒤 시민단체의 항의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비판받고 있다. 민중연대와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2일 오전 11시 경찰청사를 방문해 최근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단체대표들이 이팔호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은 청사입구를 봉쇄했다.

경찰은 이 청장이 월드컵 행사와 관련해 외부에 있다고 밝혔으나 이 청장은 그 시각 청사안에서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중연대는 18일 광화문 문화관광부 옆 ≪열린마당≫에서 열린 규탄농성 중에 연행된 40여명이 영장 없이 거의 48시간 동안 구금돼 조사를 받는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문제삼을 계획이다

또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20일 오전 청와대 앞 종로구 옥인동에서 연 ≪부시방한 반대 집회≫에서의 경찰대응도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집회는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허가를 받은 합법집회였다. 경찰은 대표단 3인이 서한전달을 위해 청와대로 향하자 집회장에 난입했을 뿐 아니라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을 1시간 이상 포위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팔호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순시 중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MBC 기자 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으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장 진압을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의 한 간부는 ≪성조기 소각 등은 집회신고서에 기재돼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회 주최측에 소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한 뒤 집회장에 들어간 것≫이라며 ≪집회 중에 깃발이나 상여를 소각하는 것은 신고하더라도 금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또 ≪현장에 투입되는 병력들에게 수시로 ≪시위대를 적으로 보지 말라≫는 교육을 시키지만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험적으로 볼 때 시위에서의 충돌은 80%이상이 시위대의 도발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시방한 반대 시위와 관련해 경찰관 20여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도형 사무차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일축한다. 김 변호사는 ≪신고되지 않은 것이라 할 지라도 일부분을 가지고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몰 수는 없으며 진압하거나 체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부시 방한 시위와 관련 대학생 140명, 사회단체 10명, 민주노동당원 3명, 진보네트워크 기자 등 191명이 연행돼 이중 18명이 구속됐다.

황방열 기자
2002/02/25 ⓒ 2002 OhmyNews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정부 방북불허로 무산

정부, 행사 하루 앞두고 46명 방북 불허 조치

2월 26-28일 금강산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정부의 방북불허에 의해 무산되게 되었다. 정부는 25일 오후 행사 참가 신청자 중 신창균 통일연대 명예대표 등 46명의 방북을 불허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연대 대표자회의의 위임을 받은 한상렬 상임대표와 김이경 사무처장, 한충목 집행위원장은 긴급 논의를 통해 사실상 행사 불참을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7대종단과 민화협도 행사 포기 쪽으로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번 처사에 대해 이승환 민화협 사무처장은 ≪한상렬 대표 외에는 통일연대 지도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통일연대 실무 관계자 역시 ≪46명을 제외하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삭감되고 행사자체가 거의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북 불허 조치에 앞서 통일연대는 행사 공동준비위원장인 신창균 선생의 방북이 불허될 경우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었다.

지난 22일 금강산으로 떠난 남측의 실무대표단 8인은 모든 행사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건에 대한 합의도 대체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5.1절 남북노동자 대회 이래 대규모의 남북 민간교류 때마다 취해졌던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조치는 행사의 원만한 진행에 난관을 조성해왔다.

신영철 기자
2002/02/25 6.15주간 편집부

공공부문 총파업, 25일 새벽부터 시작

전국철도노조와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가스공사 노조 등 3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25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됐다.

25일 새벽 4시 30분 이들 3개부문 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의 노정 타협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전면 무기한 공동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파업 지도부는 ≪정부와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서울 명동 로얄호텔 등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부 관계자와 노정 대타협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철회를 주장한 노조와 민영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채 노정간 극적 대타협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가스, 발전 3사 노조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지역난방, 한국전력기술, 고속철도건설공단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연대해 공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계획을 밝혀왔다. 이들은 정부에 철도 민영화 후 정책실패를 거듭한 영국의 사례와 전력을 민영화했다가 전력대란을 겪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3사 노조가 지난 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도 그야말로 뒷짐만 지고 있었다.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민영화는 노정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만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노조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TV토론회 실시≫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인 검증절차를 밟자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25일 오전 8시부터 1만5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서울대와 건국대에 집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이어서 오후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발전·철도·가스 총파업투쟁 지지 엄호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노총은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당초 계획했던 파업투쟁을 3개 공공부문 노조 파업에 대한 연대파업의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이종호 기자
2002/02/24 ⓒ 2002 OhmyNews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하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4주년에 즈음하여

오늘(25일)은 김대중 정권 출범 4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취임 초기.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사뭇 컸었다.

그것은 해방이후 분단기득권 세력에 의해 쌓여온 이 땅 민중들의 원한의 표출이었다.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이 땅 민중들의 요구는 언제나 분단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낸 각종 악법과 공안기구들에 의해 묵살되어 온 것이 지난 분단 반세기의 뼈아픈 역사였다.

정권교체에 국민들이 환호했던 것은 바로 50여년간 민중들의 삶을 옥죄어온 이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의 철폐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그러나 취임 4년을 맞는 오늘. 민중들의 기대는 실망의 한숨소리로 변하고 말았다.

자신이 야당시절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대중 대통령은 그의 폐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와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의 중단을 취임 4주년을 맞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오늘도 국가보안법은 서슬퍼렇게 살아 이 땅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의 숫자는 8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조직사건이 끊임없이 조작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선행독재정권에 의해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있는 범민련과 한총련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오늘에도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진정으로 6·15남북공동선언 채택의 한 당사자이고 그 이행을 바란다면 이북 주적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오늘의 남북관계를 비유하자면 왼손에는 ≪주적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비수를 들고 바른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꼴이다. 왼손에 든 비수를 내던지지 않는 한 바른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안된 테러방지법은 그 범죄 규정의 모호성과 인권침해 가능성, 그리고 국정원 권한의 강화로 하여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다분한 또 하나의 악법이다. 하여 인권단체들과 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의 제정을 한결같이 반대해 나서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정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미 사문화되어진 국가보안법을 테러방지법으로 대체하고,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공안기구의 꼼수에 다름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민중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개혁성과를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흡사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이다.

지난 4년의 허송세월을 만회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이후 통일대통령, 인권대통령으로 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남은 1년의 행보가 좌우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02년 2월 2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對테러 북미사령부체제 캐나다 인사들 반대의사 표명

로이드 액스워시 전 캐나다 외무장관은 ≪우리가 미국의 군사결정에 묶이면 묶일수록 국제사회 속에서 독자적 견해와 역할을 반영하고자 하는 캐나다 정부의 능력이 불가피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집권 자유당의 보니 브라운 의원은 ≪통합적인 (북미)대륙방어시스템은 우리 육.해.공군을 미국의 지휘 아래 종속시킬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9.11 테러 이후 캐나다는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며, 미국의 4성 장군이 이끄는 북미대륙사령부에 캐나다를 편입시키라는 미국측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도선 특파원
2002/02/25 워싱턴=연합뉴스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1)

대표집필자 최성원 / 2001년 11월 6일

순 서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들이 작성한 논문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이 발표되자 여러 가지 반향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이 논문에서 김철수 동지의 비판에 대하여 응답하려고 합니다. ≪통일여명≫ 동지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응답하는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데, 곧 발표될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게 된 것은, 변명 같이 들리겠으나, 우리들의 노력을 논문집필에만 집중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들이 이 논문을 거의 탈고하게 되었을 때, 이산, 김철수 동지의 논문을 비판하는 ≪통일여명≫ 김현 동지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반국적 관점의 오류를 지적 · 비판하고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자는 ≪통일여명≫ 동지들의 견해에 찬동하며, 그들의 집필노력에 동지적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오래 전에 나왔던 통일전선의 기성이론 가운데는 오늘의 변화 · 발전된 정세에 맞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2000년의 역사적 사변에 의한 정세발전이,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이 성립되었던 시기에는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사변이란 조미 공동코뮈니케의 채택과 6.15 공동선언의 채택입니다. 이 두 가지 문서의 채택이 증거하고 있는 조미관계 및 남북(북남)관계의 변화와 발전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혁명정세와 통일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 대한 비판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집필목적은 우리 민족민주운동 앞에 제기된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명하자는 데 있습니다.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우리들은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 사용되었던 몇 가지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대체하고 일부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는 이 문제에 관한 우리들의 견해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는 남북(북남)통일전선, 남측에서의 통일전선, 북측에서의 통일전선, 이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 남북(북남)통일전선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전선으로, 남측에서의 통일전선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광범위한 근로대중의 통일전선으로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이며, 북측에서의 통일전선은 북측 지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통일전선으로 각각 설명되었습니다. 김철수 동지가 ≪전국혁명의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인 전선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존재해야 맞다≫고 한 것은

→

광고

구국전선

주체91, 2월 21일(469)

노 작 -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명제묶음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사상에 관하여 밝히신 명제
≪**집중편집**≫ **김정일위인상**
민족의 어버이
영도자와 헌신
명언해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사상학습실 - 주체사상이 밝힌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
≪**자주**≫
자주는 민족의 출로
자주권은 평화의 담보
한미공조체제 분쇄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성취하자

구 국 전 선

[주체91(2002)년2월 21일]

노 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노작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명제묶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사상에 관하여 밝히신 명제
보 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주재 중국신임대사 접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연방 극동지구 대통령전권대표 접견 -이북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2.16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외 7건
집중편집	김정일위인상 민족의 어버이 영도자와 헌신 명언해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사상학습실	주체사상이 밝힌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
칼 럼	주체의 진리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자 주	자주는 민족의 출로 자주권은 평화의 담보 한미공조체제 분쇄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성취하자
나도 한마디	「조선일보」 또 빨갱이타령? 신문 아닌 「신문」, 「조선일보」는 즉각 폐간되야
샘 터	[illegible]
이북소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소개기사]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한민전 문서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기성이론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는 모든 전선을 통일전선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해설하였습니다만,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남북(북남)통일전선을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남측에서의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 썼습니다.

1)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

우리들은 6.15 공동선언의 채택에 의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범위의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했고, 그것을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이 나왔던 시기에는 해외동포사회의 조국통일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남측과 북측(북측과 남측) 두 지역의 조국통일역량을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우는 것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북과 남), 해외 3자의 통일전선이 아니라 남과 북(북과 남)의 2자 통일전선으로만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범민련이 남과 북(북과 남), 해외 3자 연대조직으로 결성되었던 1990년대 이후에 통일정세의 주체적 조건은 해외동포사회의 조국통일역량까지 포괄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 조선민족 전체의 조국통일역량을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운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남북(북남)통일전선이라는 용어 대신에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는 민족통일전선이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강령으로 하는 통일전선이라고 해설하였습니다. 당시는 6.15 공동선언이 나오기 훨씬 이전 시기였으므로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는 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들은 6.15 공동선언이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원칙을 오늘의 통일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글에서 오늘 민족통일전선이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 해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강령으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은 내외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 때문에 실제로 형성되지는 못했으며, 앞으로 형성해야 할 전략적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6.15 공동선언 이후의 통일정세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이 실제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

우리들은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 사용하지 않은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용어라고 해서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기성이론에서 제시했던 남측에서의 통일전선과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에서는 ≪남측에서의 통일전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정을 반영하여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는 민족민주전선이 세계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였습니다.

김철수 동지는 ≪정권장악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전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통일전선은 오직 민족민주전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전선론≫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혁명정세, 통일정세 앞에 전개되는 전선은 두 개의 전선입니다. 그 하나는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형성하고 있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측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에 따라 각계각층 근로대중이 결집하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 완결된 민족민주전선체를 결성하지 못한 미완의 민족민주전선입니다.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전선은 남측의 민족민주전선과 전민족적 범위의 민족통일전선 두 개의 전선밖에 없습니다.

3) 세 개의 전선이 아니라 두 개의 전선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김철수 동지는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에는 세 개의 전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북남)통일전선, 남측에서의 통일전선, 북측에서의 통일전선이 그것입니다. 그는 ≪북의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인민정권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을 밀고 나가는 북의 혁명전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 오늘날 북측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전선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역량이 사회주의혁명의 높은 단계에 들어가면 전선수준을 벗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수준으로 상승 · 발전하게 됩니다. 통일전선체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주체역량의 발전수준에서 볼 때 그 지위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오늘 북측에서는 통일전선체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이 북측에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통일전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설했던 것은, 그 이론이 성립되었던 당대의 북측의 혁명발전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북측의 혁명발전수준은 오늘의 높은 발전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사실을 언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을 학습하는 주체적 태도는 그 이론을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의 언어로 해설하는 것입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 방식에 관한 논의 (4)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의 ML론자들의 고연방국창립방안을 부정하는 이른바 근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그들은 통일국가창립방식문제를 계급모순순환론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남과 북의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 수 없으며 이남에서 사회변혁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계속 혁명을 하여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남에서의 사회변혁이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에까지 이루어져야 이북의 사회주의체제와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남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기 전에 연방제방식은 북의 사회주의 역량으로 남의 민주역량을 흡수하는 논리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있어서 사상과 체제가 다른 조건에서는 통일을 할 수 없다는 통일 불가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본질과 현실적 가능성, 그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조건적으로 외면하는 궤변이며 반동적 집권세력이 떠벌리는 적화통일논리를 근거지어 주고 그들의 두개 국가논리를 긍정하는 궤변이며 통일주체세력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시키는 극히 유해로운 반통일론입니다.

연방제방식에 의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입니다.

3대원칙에 기초하여 제시된 연방제방식은 하나의 민족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체제, 두 정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연방제통일방식은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이며 민족대단결의 힘에 의하여 통일할 수 있게 하는 민족주체적 통일방도이며 우리 조국의 분단실상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창조적인 통일국가수립방식입니다.

연방제방식에 의한 자주적, 평화적,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적화통일전략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토,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출하기 위하여 두개 정부, 두개 체제를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국가 수립방식입니다. (끝)